

“여름 휴가 ‘김제 야행’으로 떠나요”

추억남기기에 최적화된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구성
조선시대 민원처리 상황극·버스킹·국궁서바이벌 등 다채

‘김제 문화재 야행’이 8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저녁 8시부터 밤11시까지 개최된다. 김제시는 조선시대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던 김제관야와 국립교육기관이었던 김제향교가 국가사적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국 유일, 온존하게 보존된 곳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김제 향교 뒤편에 자리 잡은 ‘성산’은 김제의 주산(主山)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나지막한 구릉이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거닐 수 있는 곳이며, 백제부흥운동 당시 두 달간 임시수도의 역할을 하였던 역사 유적지이기도 하다.

이번 제 1회를 맞이하는 ‘김제 문화재 야행’은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공간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추억남기기에 최적화된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야로, 아화, 야사, 야시, 야

경, 야식, 야설, 야숙 등 8개 분야 4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김제 관야에서는 옛 행정기관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조선시대 민원처리 상황극’과 김제 향교에서는 점차로 사라져가는 ‘효(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시간과 선비문화를 보여주는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성산일원에서는 별빛 버스킹공연과, 재미있는 이야기 할아버지, 백제 부흥운동 당시 내당연합군과 백제군과의 일전을 재현한 ‘국궁 서바이벌’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첫날 개막행사는 10일 저녁 8시부터 저명한 국악인의 공연과, 검무, 드론과 트론을 활용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들로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테너 류정필과 함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연주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오는 9일 오후 7시에 격포 변신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야외공연장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전라’ 음악회를 무료공연으로 개최한다.

이번 합동공연은 전라권역 부안, 익산, 광주, 목포에서 아이들이 갈고닦은 연주 실력을 선보임으로써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전라권 4개 거점 오케스트라에서 오디

션을 통해 선발된 120명의 아이들이 연주자로 나선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총 4차례에 걸친 리허설캠프를 통해 준비한 생상스의 ‘바카렐라’, 덴치의 ‘푸니쿨리 푸니쿨라’,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중 강강’ 등 완성도 높은 합주연주를 60여 분간 선보일 계획이다.

합동공연에 참여하는 120명의 연주자들은 2~3년 전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처음으로 악기를 접한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갖지 않은 시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각자의 소리를 모아 준비한 공연인 만큼 그 의미와 감동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꿈의 오케스트라 전라’ 공연에서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있다. 첫번째 무대는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 포스댄스 컴퍼니와 가수사이에서 안데스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며, 두번째 무대는 테너 류정필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협연이 이루어 질 예정으로, 격포를 찾는 관광객들과 부안군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갖지 않은 시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각자의 소리를 모아 준비한 공연인 만큼 그 의미와 감동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꿈의 오케스트라 전라’ 공연에서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있다. 첫번째 무대는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 포스댄스 컴퍼니와 가수사이에서 안데스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며, 두번째 무대는 테너 류정필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협연이 이루어 질 예정으로, 격포를 찾는 관광객들과 부안군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갖지 않은 시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각자의 소리를 모아 준비한 공연인 만큼 그 의미와 감동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꿈의 오케스트라 전라’ 공연에서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있다. 첫번째 무대는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 포스댄스 컴퍼니와 가수사이에서 안데스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며, 두번째 무대는 테너 류정필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협연이 이루어 질 예정으로, 격포를 찾는 관광객들과 부안군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호 신임 국립익산박물관장 취임

국립익산박물관은 신상호 전(前)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신임 국립익산박물관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상호 신임 관장은 전남대학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립광주박물관에서의 첫 근무를 시작으로 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신 관장은 “새로 건립될 국립익산박물관은 ‘고도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2020년 초 새로운 국립익산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이번 주말은 무주 한여름밤의 낭만콘서트에서 힐링~”

구천동 다목적 광장서 낭만 콘서트 개최

무주군은 오는 8월 3일과 10일 구천동 다목적 광장(무주군 설천면 삼공리)에서 구천동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한 여름 밤의 낭만 콘서트를 개최(19:30~21:30)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주군이 주최·주관하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레이디티를 비롯한 ‘별사랑’과 ‘조승우’, ‘모닝’, ‘지혜’, ‘박혜신’ 등 초대 가수 공연이 펼쳐지며 미술과 매직비눗방울, 난타, 변검, 매직홀리우드 공연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최현희 관광마케팅 팀장은 “휴가철을 맞아 무주구천동을 찾게 될 많은 관광객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한 여름 밤의 낭만 콘서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보러와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

특별판 ‘수의사 헤리엇이 사랑한 동물들’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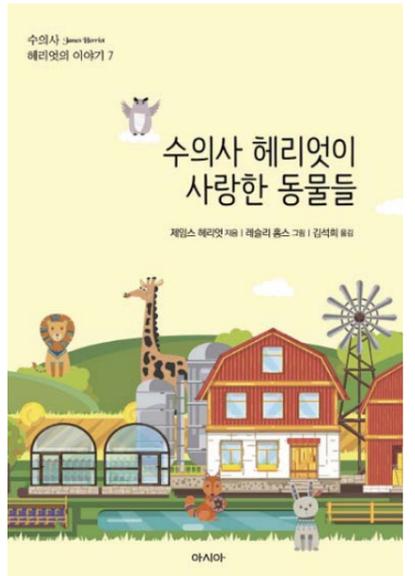
“고집으로 남을 책, ‘경이롭다’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사카고타임스), “짧은 수의사의 따뜻하고 즐겁고 유쾌한 연대기는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빛난다”(뉴욕타임스), “헤리엇은 반려동물과 그들의 주인들 이야기로 독자들을 감동하게 하고 요크셔 지방의 거칠고 아름다운 세계로 독자들을 데려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사카고 트리뷴)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독자들은 제임스 헤리엇의 놀라운 이야기와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 뛰어난 스토리텔링에 전율해 왔다. 수십 년 동안 헤리엇은 아름답고 외딴 요크셔 지방의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가장 작은 동물부터 가장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쁜 동물을 치료하고, 그들을 애정이 담긴 예리한 눈으로 관찰했다.

제임스 헤리엇(제임스 엘프레드 화이트)의 아들 짐 화이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헤리엇의 앞선 4부작 시리즈에 실린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제임스 헤리엇다운 글을 가려 따로 엮어 특별판 ‘수의사 헤리엇이 사랑한 동물들’을 펴냈다. 이 책은 ‘수의사 헤리엇의 이야기’ 시리즈의 마지막이다.

뛰어난 이야기꾼과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만나면서 얽히고 설킨 10편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감동적이고 훈훈해서, 읽고 나면 좀처럼 잊기 어렵다. 제임스 헤리엇의 펜에서 나온 말들이 모두 그렇듯이, 모든 이야기는 인간성이라는 매력적인 주제에 관한 것이다. 부드러운 재치와 인간적인 온정이 마술처럼 섞여 있다. 결국 그의 이야기들은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에 실린 10편의 이야기는 본책 네권에 실린 이야기들 중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편집을 맡은 아들로서는 가장 애처로운 글을 가려낸 것일지 모른다. 다만 시리즈를 읽은 독자들로서는 이미 읽은 글을 또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전 편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책을 따로 엮어 펴내면서 삽화를 함께 실었다는 점이다. 레슬리 홀슨의 아름답고 세련된 수채화는 헤리엇의 글에 풍경을 더하고 색칠을 더해, 저자가 살았던 시대와 장소의 숨결



을 더욱 실감나게 되살려 놓았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감동적인 독후감을 선물처럼 안겨 주고, 이 책의 소장 가치를 더욱 높여 줬다.

제임스 헤리엇은 1916년 영국 잉글랜드의 선덜랜드에서 출생하여 한 살 때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이주하여 성장했다. 평생을 요크셔 푸른 초원의 순박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 헤리엇은 50세가 된 1966년부터 비로소 그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해 다수의 책을 펴냈다.

써낸 책마다 사람과 동물에 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그의 책은 26개국 언어로 번역돼 50여년 동안 전 세계 독자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영어권에서만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영국 BBC에서 TV시리즈로도 제작돼 1800만 시청자를 감동시키기도 했다.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됐다. 1장(고아가 된 새끼 양, 허버트), 2장(말에게 얻은 교훈), 3장(트리키의 초대장), 4장(사랑의 메신저, 수지), 5장(행복한 시달림), 6장(몽상가 미키), 7장(블로섬, 집으로 돌아오다), 8장(머틀은 아무 이상도 없다), 9장(두드러기 반점), 10장(크리스마스의 추억) 김석희 옮김, 1만3500원, 아시아/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